

2024년도 요코하마시 외국인 의식 조사 [개요판]

1 사업의 조사 개요

	항 목	내 용
■조사 개요 • 요코하마시의 외국인 인구는 2024년 4월 시점에 약 12만 명이며,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시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 의식이나 요구를 파악하여 시정 운영이나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“요코하마시 외국인 의식 조사”를 실시했습니다. • 조사표는 우송했고, 응답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주민 기본 대장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의 시내 거주 외국인 5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, 1,512건(회수율 30.2%)이 응답되었습니다.	조사 대상	• 만 18세 이상의 시내 거주 외국인 5,000명 ※주민 기본 대장에서 무작위 추출
	회수 수	• 1,512건
	회수율	• 30.2%
	조사 방법	• 우송을 이용한 무기명 조사(우송 또는 인터넷으로 응답)
	조사표 대응 언어	• 일본어,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베트남어, 네팔어
	조사 기간	• 2024년 7월~8월
	조사 결과 보는 법	• SA: 단일 응답 방식 설문 MA: 복수 응답(제한 없음) 방식 설문 LA(제한 질문 수): 복수 응답(제한 있음) 방식 설문 n: 해당 설문의 유효 응답 수 • 응답 비율(모두 백분율[%]로 표시)은 그 설문의 응답자 수를 기수(건수)로 산출했다. 따라서 복수 응답 설문은 전체 비율을 합계하면 100%를 초과할 수 있다.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산출했으므로 합계가 100%이지 않을 수 있다.

2 조사 결과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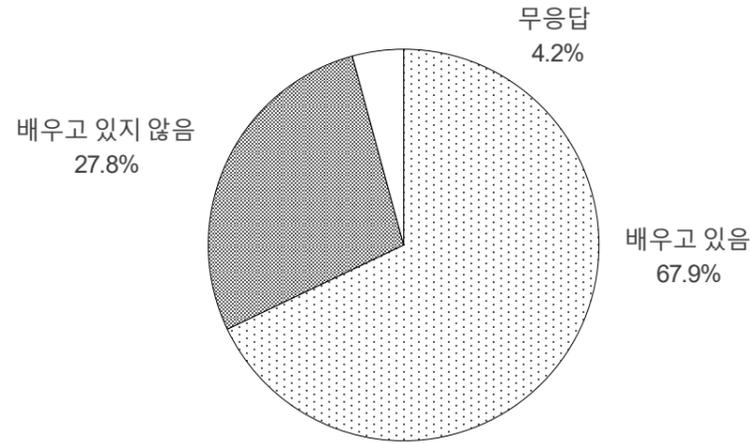
응답자 속성

- 【성별(SA)】** 여자 51.8%、남자 41.2%、그 외 0.6%
- 【연령(SA)】** 청년층(39세 이하) 50.3%、중년층(40~59세) 33.5%、고년층(60세 이상) 11.7%
- 【거주 구(SA)】** “나카구”(11.6%)、 “가나가와구”(11.2%)、 “쓰루미구”(10.5%)、 “미나미구”(7.9%)、 “고호쿠구”(7.5%)의 5구가 전체의 48.7%
- 【국적·지역(SA)】** “중국”(33.7%)、 “베트남”(11.4%)、 “한국”(9.1%)이 전체의 54.2%
- 【재류 자격(SA)】** “영주자”(27.0%)、 “기술·인문 지식·국제 업무”(12.6%)、 “일본인 배우자 등”(4.6%)、 “가족 체재”(4.6%)、 “유학”(4.2%)이 전체의 52.8%
- 【일본에 온 이유(MA)】** “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”(33.9%)、 “일을 찾고 싶어서”(21.2%)、 “유학”(20.6%)、 “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낼 것 같아서”(20.2%)
- 【일본 거주 연수(SA)】** “5~10년 미만”(20.6%)、 “20~30년 미만”(13.5%)、 “30년 이상”(13.0%)、 “10~15년 미만”(12.6%)、 “15~20년 미만”(8.7%)이 전체의 68.3%
- 【요코하마시 거주 연수(SA)】** “1~3년 미만”(17.6%)、 “5~10년 미만”(16.9%)、 “1년 미만”(12.8%)、 “3~5년 미만”(12.8%)이 전체의 60.1%
- 【가족 구성(SA)】** “부모와 자식[2세대]”(35.7%)、 “부부(반려자)만 산다”(25.8%)、 “혼자 산다”(25.4%)
- 【직업(SA)】** “회사원·공무원·단체 직원”(49.7%)、 “아르바이트·시간제 근무”(15.9%)、 “전업주부”(9.1%)、 “자영업·자유직”(6.9%)
- 【거주 형태(SA)】** “임대 주택 (민간 아파트, 민간 임대 맨션) ”(28.6%)、 “자택 소유(맨션·공동 주택) ”(19.8%)、 “자택 소유(단독 주택) ”(18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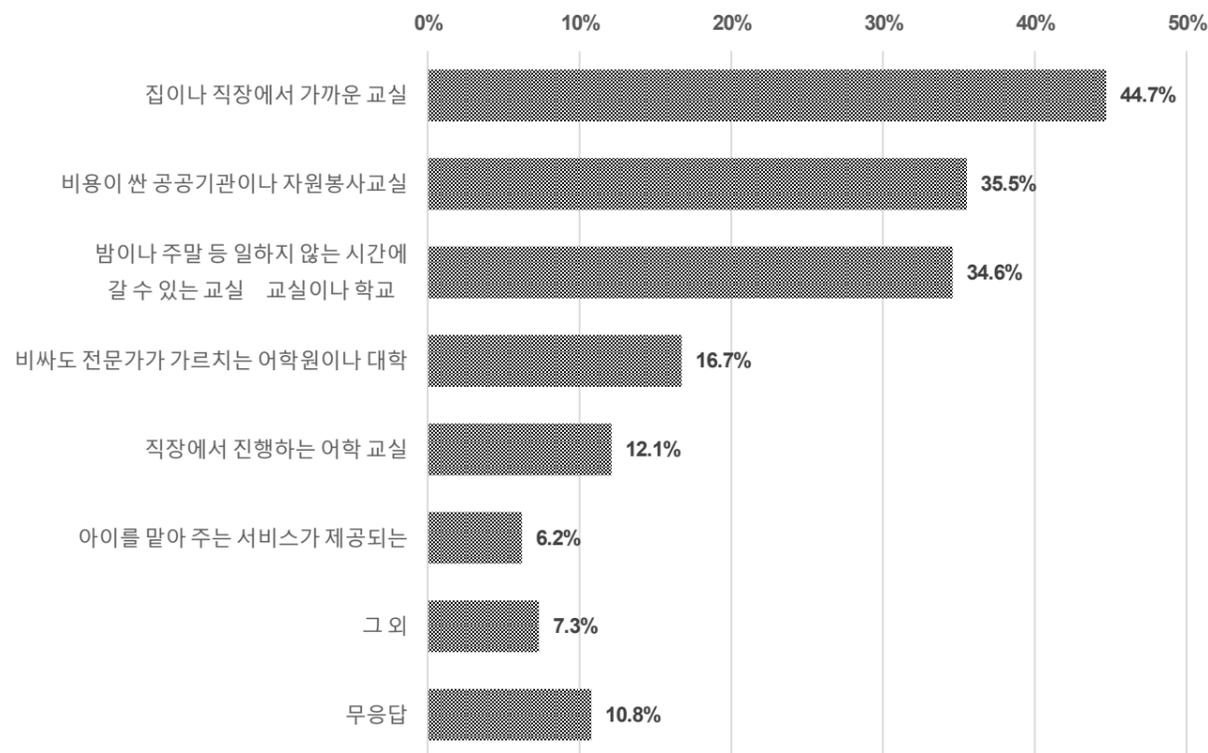
언어에 대해서

- 【일본어 이외에 일상 회화가 가능한 언어(MA)】 “영어”(47.4%) 및 “중국어”(40.1%)
- 【일본어를 배우고 있는가? (SA)】 “배우고 있음”(67.9%), “배우고 있지 않음”(27.8%)
- 【일본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가? (MA)】 “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(독학으로)”(46.2%), “직장(일하는 곳)에서”(22.6%), “가족에게 배우고 있다”(11.4%)
- 【일본어를 배우는 목적·목표(MA)】 “(이웃·직장 등의) 일본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”(72.8%), “일하기 위해”(48.6%), “일본의 사회적 규정 등의 이해”(43.4%)
- 【현재의 일본어 수준(SA)】 “일본어를 듣고 말할 수 있음”(87.8%), “일본어를 읽을 수 있음”(85.1%), “일본어를 쓸 수 있음”(79.0%)
- 【어떠한 곳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가? (MA)】 “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교실”(44.7%), “비용이싼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교실”(35.5%), “밤이나 주말 등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교실 교실이나 학교”(34.6%)

<일본어를 배우고 있는가? (SA) > (n= 1,5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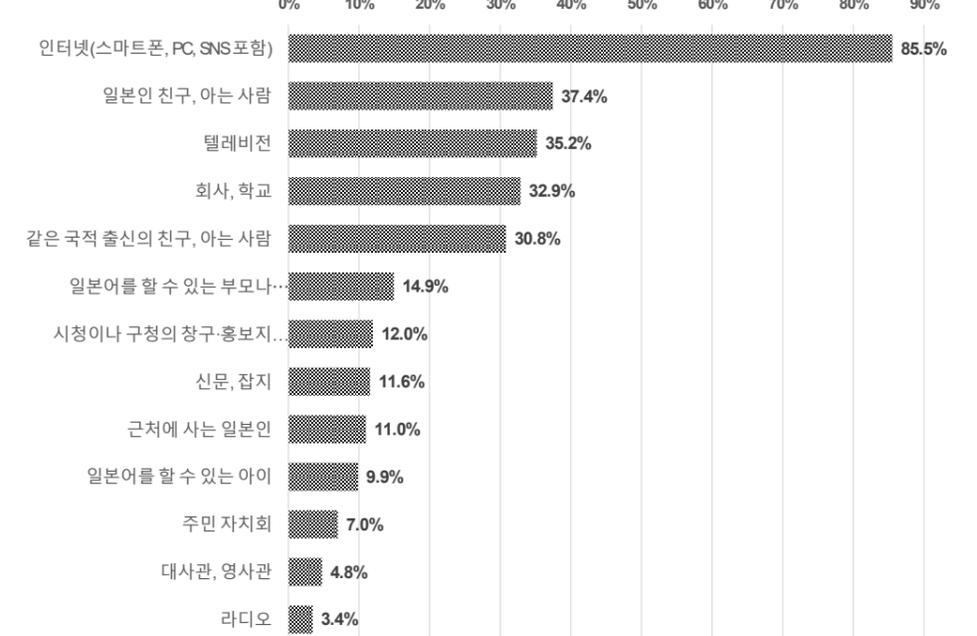
<어떠한 곳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가? (MA) > (n= 1,5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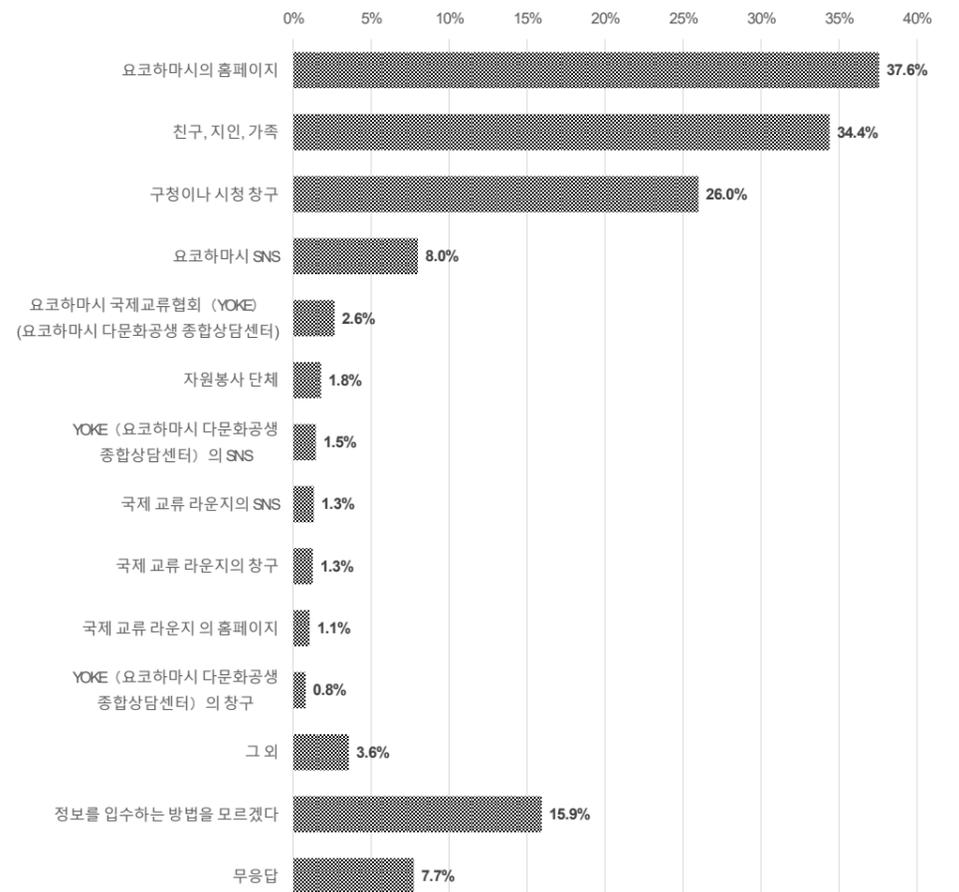
생활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서

- 【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(MA)】 “인터넷”(85.5%), “일본인 친구, 아는 사람”(37.4%), “텔레비전”(35.2%), “회사, 학교”(32.9%), “같은 국적 출신의 친구, 아는 사람”(30.8%)
- 【인터넷에서 자주 찾아보는 정보(MA)】 “홈페이지”(41.8%), “Facebook”(38.8%), “LINE”(37.8%)
- 【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 방법(MA)】 “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”(37.6%), “친구, 지인, 가족”(34.4%), “구청이나 시청 창구”(26.0%)

<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(MA) > (n= 1,512)



<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입수 방법 (MA) > (n= 1,5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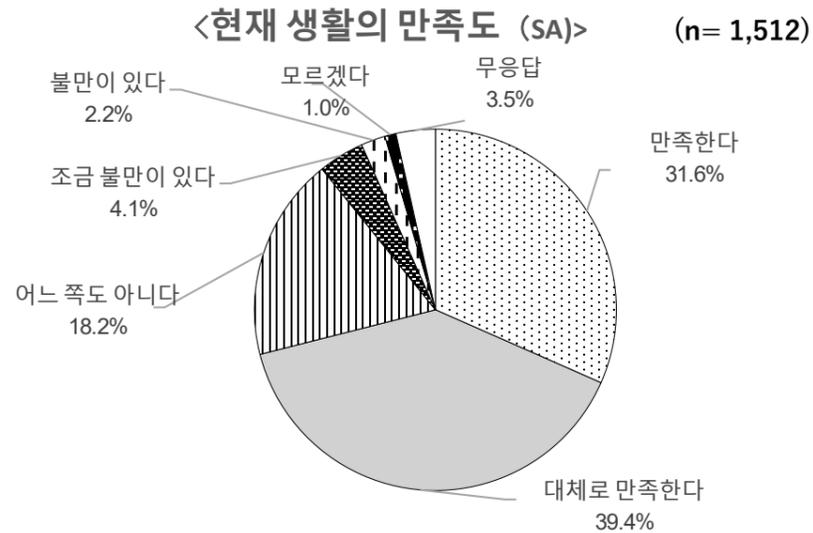


【현재 생활의 만족도(SA)】 “만족스러움” “만족스러운 편임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1.0%，“불만족스러움” “불만족스러운 편임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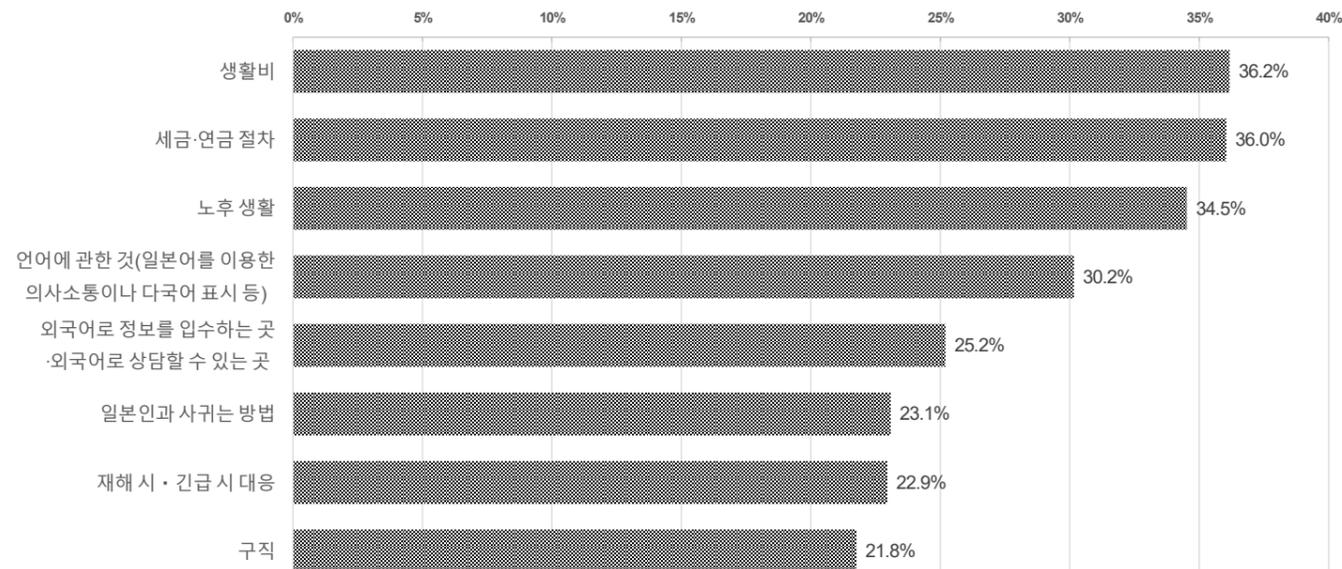
【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(MA)】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의 상위 3 항목은 “생활비”(36.2%),“세금·연금 수속”(36.0%),“노후 생활”(34.5%)

【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특히 힘들다고 느낀 점(LA(3))】 “수입 감소 등 금전 문제에 관한 것”(27.6%),“자신이나 가족의 확진, 예방에 관한 것”(18.6%),“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”(15.8%)

【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을 때 상담하는 곳(MA)】 “가족”(46.3%),“같은 국적 출신의 친구, 아는 사람”(41.1%),“일본인 친구, 아는 사람”(37.2%),“상담할 곳이 없다”(4.3%)



<요코하마의 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걱정되는 점 (MA) > (n=1,5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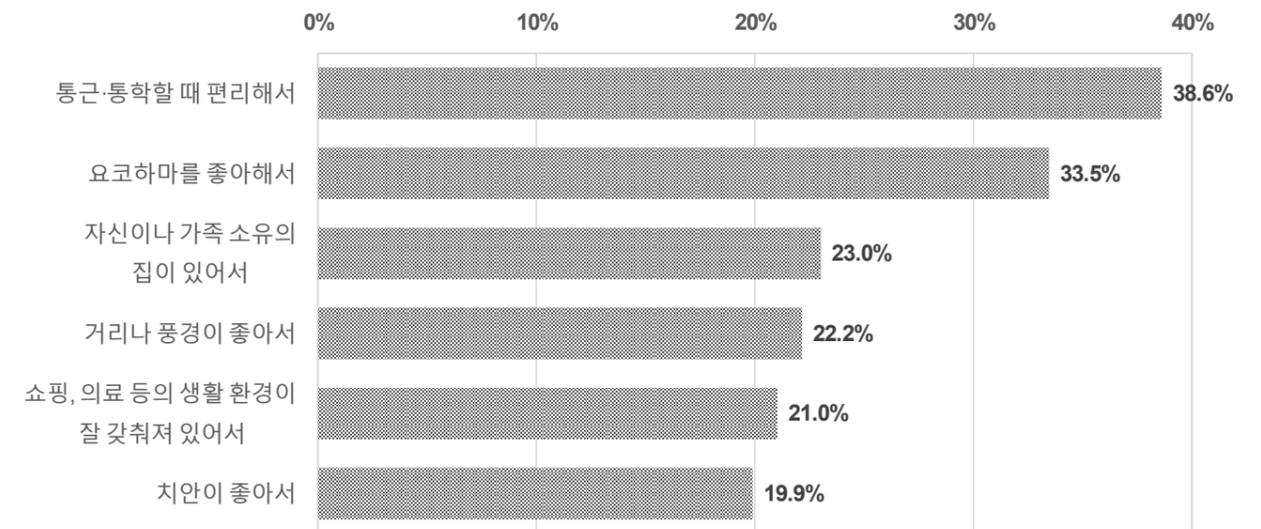
【이웃과의 교류(SA)】 “길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한다”(47.8%),“얼굴도 잘 모른다”(24.5%),가끔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”(13.9%)

【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느낌(SA)】 “서로의 생활에 참견하거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서 살기 좋다”(59.2%),“인간관계가 깊지 않아 외롭다”(18.3%),“사람 간의 유대 관계가 강해서 살기 좋다”(14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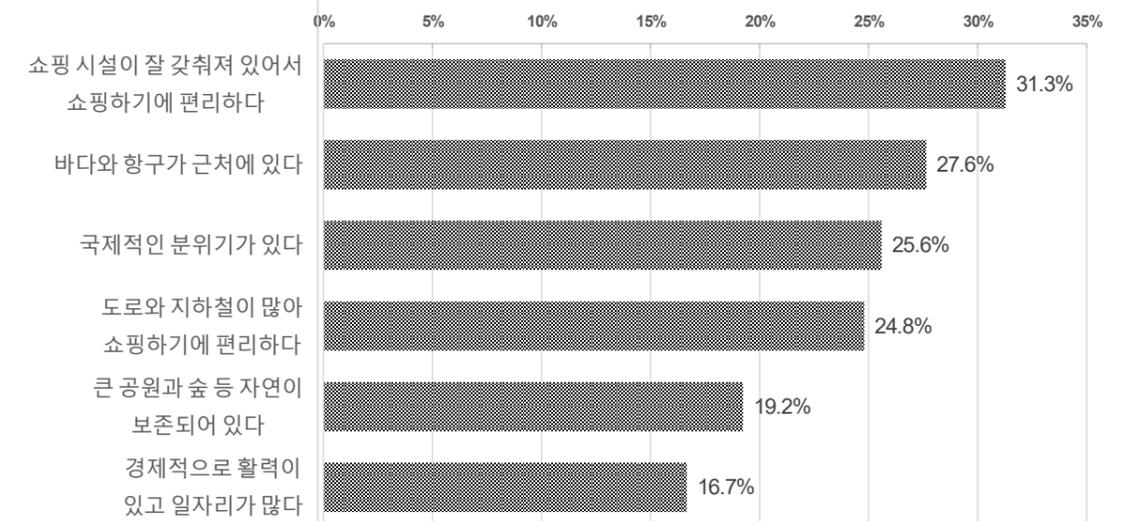
【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이유(MA)】 “통근·통학할 때 편리해서”(38.6%),“요코하마를 좋아해서”(33.5%),“자신이나 가족 소유의 집이 있어서”(23.0%)

【요코하마에 매력을 느낀 점(LA(3))】 “쇼핑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쇼핑하기에 편리하다”(31.3%),“바다와 항구가 근처에 있다”(27.6%),“국제적인 분위기가 있다”(25.6%)

<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이유 (MA) > (n=1,5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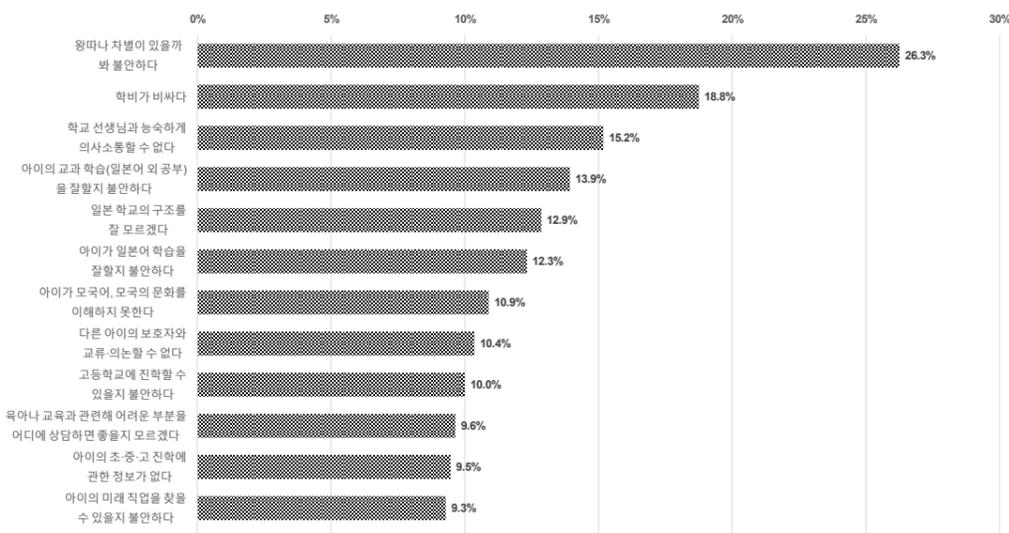
<요코하마에 매력을 느낀 점(LA(3))> (n=1,512)



육아, 교육에 대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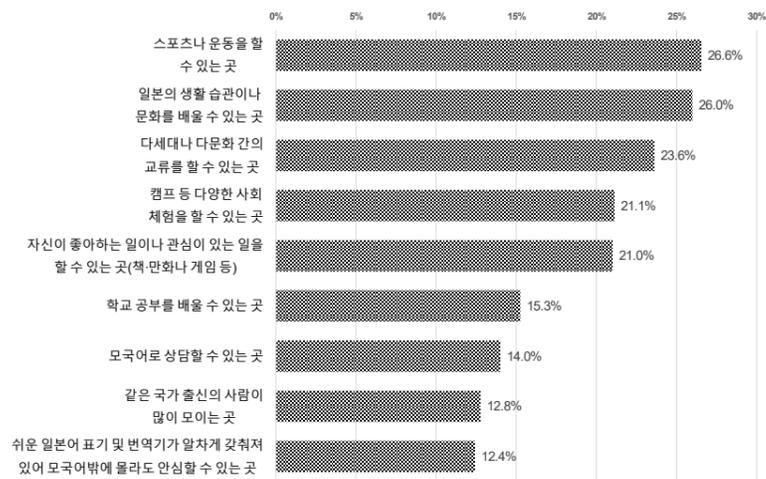
- 【0 세~5 세, 6 세~14 세, 15 세~18 세 자녀의 유무(MA)】** “0 세~5 세 자녀가 있음”은 전체의 15.1%, “6 세~14 세 자녀가 있음”은 전체의 22.5%, “15 세~18 세 자녀가 있음”은 전체의 8.3%
- 【자녀의 중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(SA)】** “일본 고등학교에 통학”은 전체의 81.1%
- 【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(MA)】** “아이가 일본어를 할 수 없다”(28.6%),“일본의 교육이 자신의 아이에게는 맞지 않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”(28.6%)
- 【육아나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힘든 점(MA)】** “왕따나 차별이 있을까 봐 불안하다”(26.3%),“학비가 비싸다”(18.8%),“학교 선생님과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”(15.2%)
- 【자녀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떠한 곳이 좋은가?(MA)】** “스포츠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곳”(26.6%),“일본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”(26.0%),“다세대나 다문화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곳”(23.6%)

<육아나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힘든 점(MA)> (n=560)



<자녀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어떠한 곳이 좋은가? (MA)> n=885

-본인이 29세 이하이거나 0세~18세 자녀가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



재해 방지에 대해서

- 【지역 방재 거점의 인지도(SA)】** “지역 방재 거점을 알고 있고, 장소도 파악하고 있다”(38.5%),“지역 방재 거점은 알고 있지만,장소는 모른다”(25.5%),“모른다”(30.7%)
- 【평소의 재해 대비(MA)】** “음식과 물을 준비해놓고 있다”(49.9%),“일기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있다”(41.3%),“라디오, 손전등 등을 준비하고 있다”(20.6%),“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”(19.8%)

인권·다문화 공생에 관하여

- 【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(LA(3))】** “의견이나 행동, 문화 등을 존중하지 않는 것”(16.7%),“소위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”(16.3%)
- 【일본인에게 바라는 점(MA)】** “차별 의식을 지니지 않았으면 좋겠다”(33.5%),“친구가 되고 싶다”(26.7%),“지역 행사,이벤트 등에 외국인이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”(25.1%)
- 【지역 활동의 경험(MA)】** “주민 자치회 나 PTA”(13.3%),“공원 청소나 꽃 가꾸기”(7.5%),“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지원”(7.3%),“특별히 없다”(54.6%)
- 【지역 활동의 계기(MA)】** “일본인에게 권유받았다”(34.4%),“지역에 공헌하고 싶어서”(30.7%),“스스로 시작했다”(21.1%),“시간이 있어서”(21.1%)
- 【경험해 보고 싶은 지역 활동(MA)】** “언어를 가르친다”(16.4%),“통역·번역을 한다”(15.0%),“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지원”(14.6%)
- 【지역 활동 참가의 구조, 지원 희망(LA(3))】** “야간이나 휴일 등 일하지 않는 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것”(43.5%),“일본인의 권유”(26.7%)

<경험해 보고 싶은 지역 활동 (MA)>

